섬의 보석

해변의 숲 지대나 마을 가까이의 친숙한 장소에서도 보석처럼 선명히 빛나는 갑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류큐광택꽃무지(학명: *Protaetia pryeri*)

몸길이는 2cm 정도로서 금속 광택이 강한 녹색 또는 구릿빛 개체가 많고 매우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성충은 수액이나 과일 즙을 즐겨 빨아먹습니다. 규슈 남부에서 류큐 제도에 걸쳐 서식하며 오키나와 섬에서는 자주 볼 수 있지만, 케라마의 자마미지마 섬, 아카지마 섬 등지에서는 수가 적어 운이 좋아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오무네스지비단벌레 (학명: *Chrysodema dalmanni*)

몸길이는 2~3cm 정도로서 녹색의 광택이 있는 몸에 노란색 가루가 붙어 있어 금녹색으로 보이는 대형 비단벌레입니다. 성충은 인도아몬드 잎을 먹고, 애벌레는 고사한 인도아몬드 나무를 즐겨 먹습니다. 항구에 있는 공원 등지에 심어져 있는 인도아몬드 주변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류큐 제도에 서식하며 여름 무렵에 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이치몬지잎벌레 (학명: *Morphosphaera coerulea*)

몸길이는 9mm 정도로서 짙은 청록색의 금속 광택을 띠는 날개와 주황색 가슴 부분의 대조가 아름다운 잎벌레류입니다. 가슴 부분의 주황색에는 한일자(이치몬지) 모양으로 늘어선 검은 점이 있습니다. 가주마루(대만고무나무)와 하마이누비와(뽕나무과 나무)의 잎을 즐겨 먹으며 지나치게 늘어나면 가주마루 등을 고사시키는 해충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미오시마 섬 이남에 서식하며 초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볼 수 있습니다.